

### 케이스탯 2022년 1월 사회지표

#### ■ 월 정기 지표

- \_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 부정평가 다시 상승
- \_ 경제 방향성 : ‘잘못된 방향’ 우세 흐름 갱신
- \_ 정부 신뢰도 : ‘신뢰 안한다’ 지속 우위
- \_ 정부 정책 만족도 : ‘만족 않는다’ 여론 뚜렷
- \_ 정당 호감도 : 마음에 드는 정당 ‘없다’ 우세
- \_ 다음 달 개인 소득 전망 : 새해에도 부정적 전망
- \_ 다음 달 개인 지출 전망 : ‘늘어날 것’ 우위 지속
- \_ 부동산 가격 전망 : ‘상승 전망’ 하락세
- \_ 주식 가격 전망 : ‘상승 전망’ 지속

#### ■ 1월 특별지표 :

##### ‘자유’에 대한 태도 / 한국사회 우려 이슈

- \_ ‘시장자유 절대 보장’ 57% vs ‘공익위해 제한 가능’ 43%
- \_ ‘개인자유 절대 보장’ 59% vs ‘공익위해 제한 가능’ 41%
- \_ 한국사회 우려 이슈 : 불평등, 코로나 19, 지도층 부패

##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2년 1월 7일(금) ~ 1월 9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본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29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3.06\%$
가중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1년 1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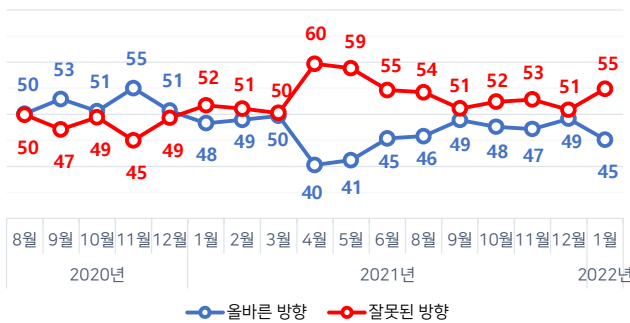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월 정기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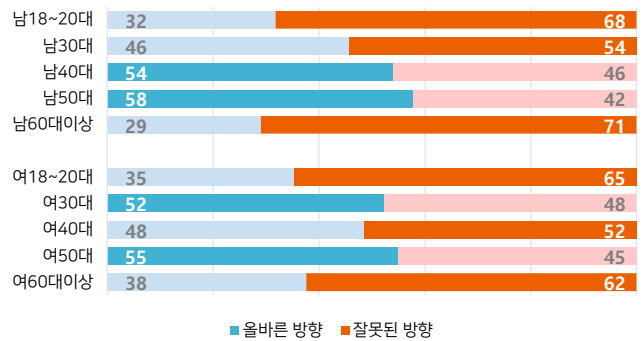
###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 부정평가 다시 상승

- 대한민국 방향성에 대해 네 달 가량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팽팽한 모습이었으나, 1월에는 부정평가 다시 상승하면서 격차가 10%p로 벌어짐
  - 2022년 1월 조사결과 '올바른 방향' 45% vs '잘못된 방향' 55%로 나타남
- 계층별 우세 의견이 다른데, 먼저 '올바른 방향'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남자 4050세대 △여자 30대, 여자 50대 △호남 △진보층 △사회이익중시층 등임
- '잘못된 방향'이 우세한 계층은 △남자 2030세대, 남자 60대이상 △여자 18~20대, 여자 40대, 여자 60대이상 △서울, 경기.인천, 충청, TK, PK △보수층, 중도층 △모든 직업군 △개인이익중시층, 중간층 등으로 다수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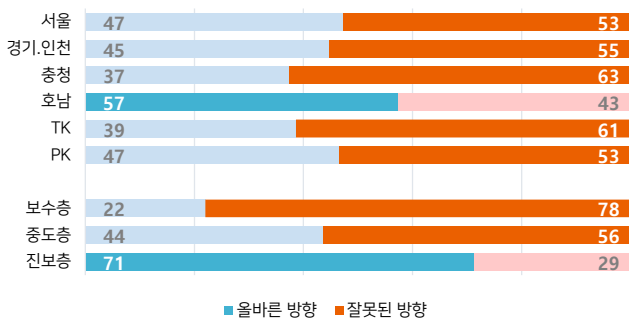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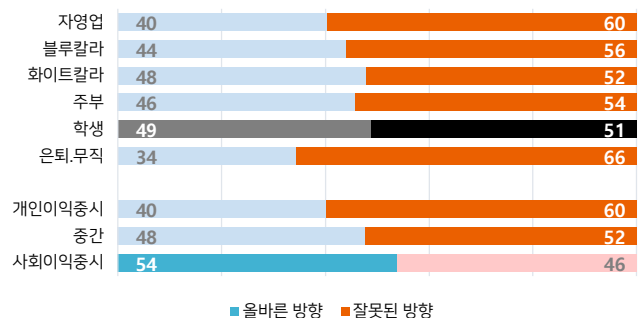
2022년 1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 성/연령별 (단위:%)



2022년 1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2.01.09조사,단위:%)



2022년 1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직업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2.01.09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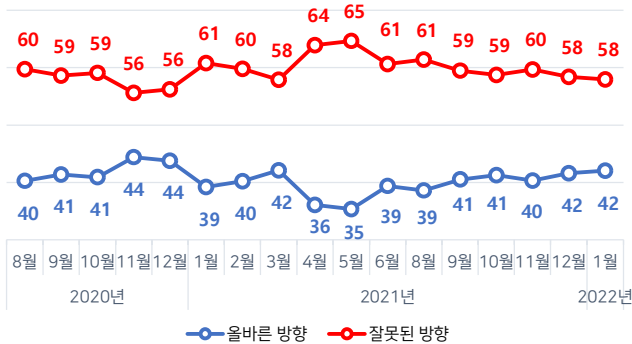
#### Kstat Point

- ☑ 최근 몇 달간 긍정/부정평가가 팽팽히 맞서던 대한민국 방향성에 대한 국민여론이 부정평가 우위로 정착됨
  - : 코로나19 유행 지속과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 앞으로도 단기간 내에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낮아 다음 달에도 부정평가 여론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됨
- ☑ 한편, 대선이 임박해짐에 따라 여야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네거티브 공세 역시 강화될 것으로 보여, 이러한 상황이 대한민국 방향성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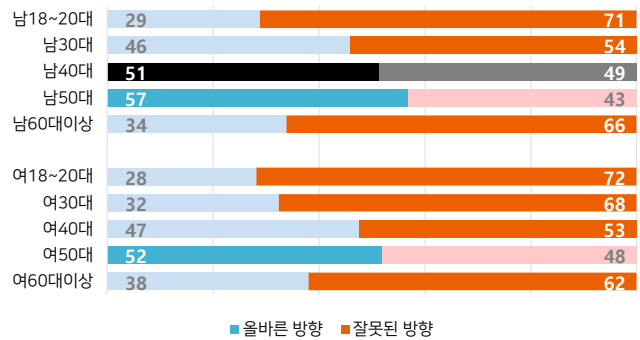
## □ 경제 방향성 : '잘못된 방향' 우세 흐름 갱신

- 경제 방향성에 대한 국민여론은 2020년 3월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22개월 연속 '잘못된 방향'이 우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
  - 2022년 1월 조사결과 '올바른 방향' 42% vs '잘못된 방향' 58%로 전월과 동일함
-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잘못된 방향'이 우세하고, '올바른 방향'이 우세한 계층은 50대 남녀, 진보층, 사회이익중시층에 그침
  - 남자 40대는 긍정평가 51% vs 부정평가 49%로 의견이 팽팽함
- '잘못된 방향'이라는 의견이 특히 우세한 계층은 △남자 18~20대, 남자 60대이상 △여자 2030세대 △보수층 △은퇴.무직자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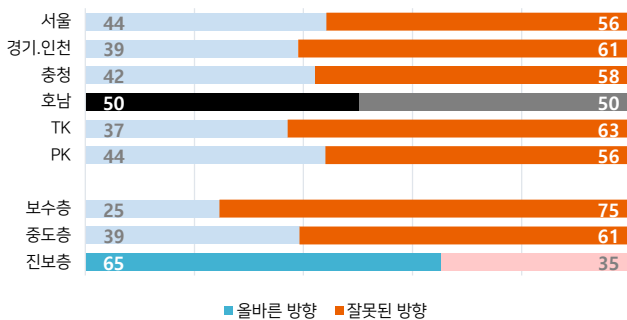
경제 방향성 평가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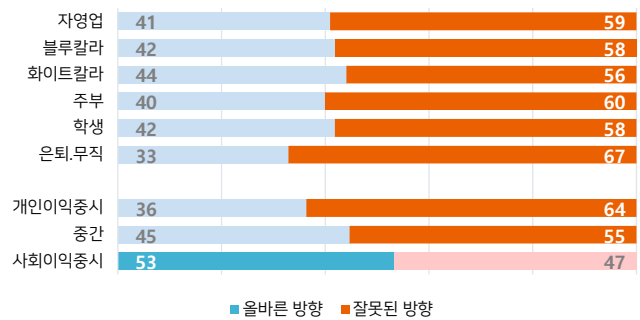
2022년 1월 경제 방향성 평가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2022년 1월 경제 방향성 평가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2.01.09조사,단위:%)



2022년 1월 경제 방향성 평가 : 직업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2.01.09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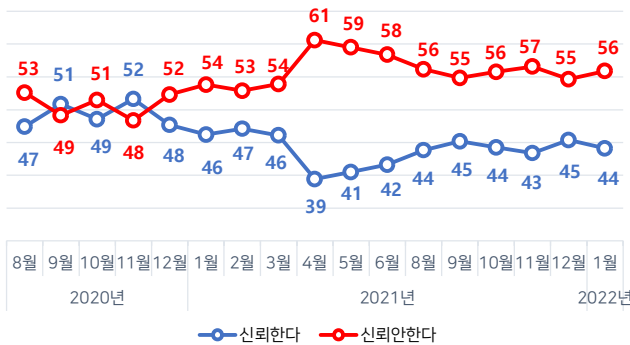
### Kstat Point

- ☑ 국민여론만 놓고 보면 대한민국 경제는 약 3년간 '잘못된 방향'으로 치달고 있으며, 개선 가능성도 낮음
  - : 거시경제 지표로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탄탄하지만 국민들 생각은 이와 다른 것으로, 그만큼 국가경제 성장과 국민생활 개선과의 연관성이 약해진 결과로 분석됨
- ☑ 또한 최근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유동성 급증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겹치면서 전 세계적·국내적으로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국민적 불만이 가중된 것으로 보임
  - :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물가 상승 흐름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 물가상승, 즉 인플레이션은 전 세계적 양상으로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회복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 ☑ 이에 따라 2월 경제 방향성에 대한 국민평가 역시 부정평가 우세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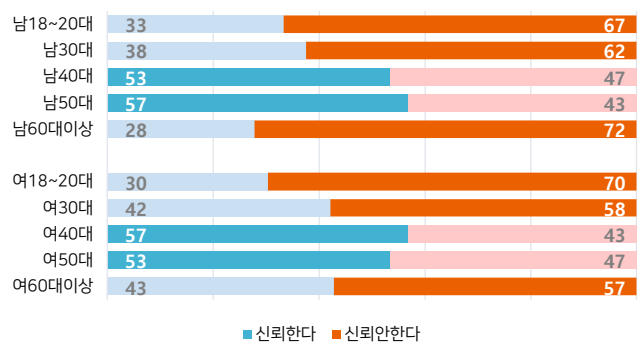
## □ 정부 신뢰도 : '신뢰 안한다' 지속 우위

-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지속적으로 '신뢰 안한다'는 의견이 우세함
  - 2022년 1월 정부 신뢰도 역시 '신뢰 안한다'는 의견이 56%로 부정평가 우위 흐름이 지속됨
-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신뢰 안한다'는 의견이 우세하고,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2030세대, 남자 60대이상 △여자 18~20대 △충청, TK △보수층 △블루칼라, 은퇴.무직자 △개인이익 중시층 등임
- '신뢰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남자 4050세대 △여자 4050세대 △호남 △진보층에 그침
  - 사회이익중시층은 '신뢰한다'와 '신뢰 안한다'는 의견이 팽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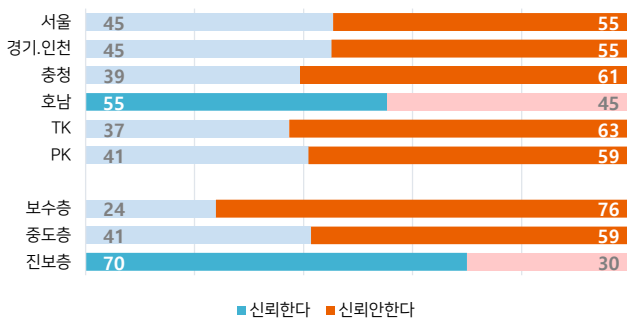
정부 신뢰도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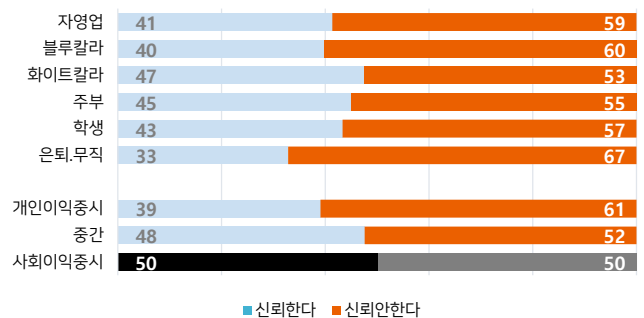
2022년 1월 정부 신뢰도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2022년 1월 정부 신뢰도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2.01.09조사,단위:%)



2022년 1월 정부 신뢰도 : 직업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2.01.09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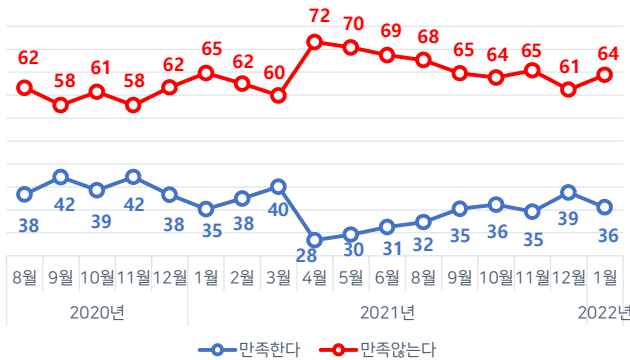
### Kstat Point

- ☑ 최근 정부 신뢰도는 대선후보 지지율과 연동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 여권후보 지지율이 상승하면 정부 신뢰도가 상승하고, 야권후보 지지율이 상승하면 정부 신뢰도가 하락하는 양상임
  - : 이는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됨에 따라 국민적 관심이 현 정부가 아닌 대선 후보로 이동한 결과로 분석됨
- ☑ 계층별 여론을 보면 이러한 흐름이 단적으로 확인됨
  - : '신뢰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계층은 남녀 4050세대와 호남, 진보층으로 모두 이재명 후보 핵심지지층임
- ☑ 최근 각종 대선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박빙 양상이 유지되고 있어 다음 달 정부 신뢰도 역시 상승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 다만, 오래도록 박스권에 갇혀있는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 상승을 이뤄낼 경우, 정부 신뢰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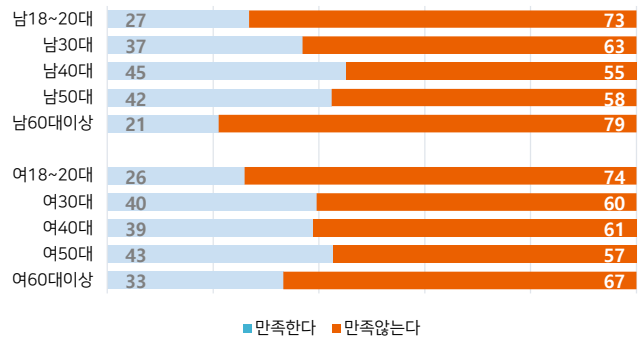
## □ 정부 정책 만족도 : '만족 않는다' 여론 뚜렷

-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은 조사 이후 지금까지 22개월 연속으로 '만족 않는다'는 여론이 우세함
  - 2022년 1월 조사결과 '만족한다' 36% vs '만족 않는다' 64%로 나타남
-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만족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하고, '만족한다'는 의견은 진보층과 학생층에 그침
  - 현 정부 핵심 지지층 중 하나인 호남에서도 '만족 않는다'는 의견이 소폭 우세함
- '만족 않는다'는 의견이 특히 우세한 계층은 △남자 18~20대, 남자 60대이상 △여자 18~20대 △충청 △보수층 △은퇴.무직자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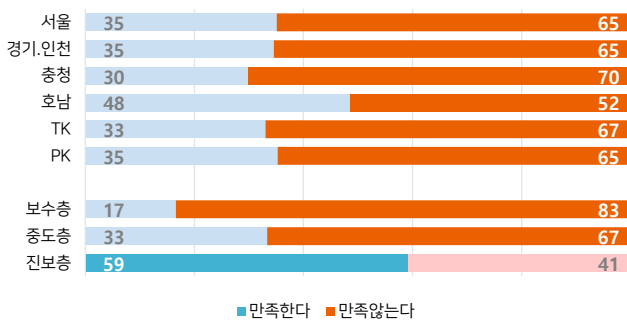
정부정책 만족도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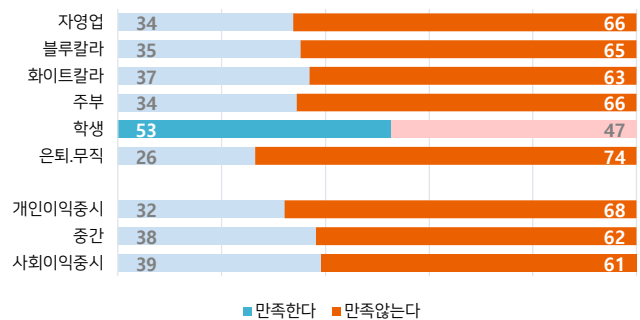
2022년 1월 정부정책 만족도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2022년 1월 정부정책 만족도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2.01.09조사,단위:%)



2022년 1월 정부정책 만족도 : 직업별,이직증시별 (자료:케이스탯,2022.01.09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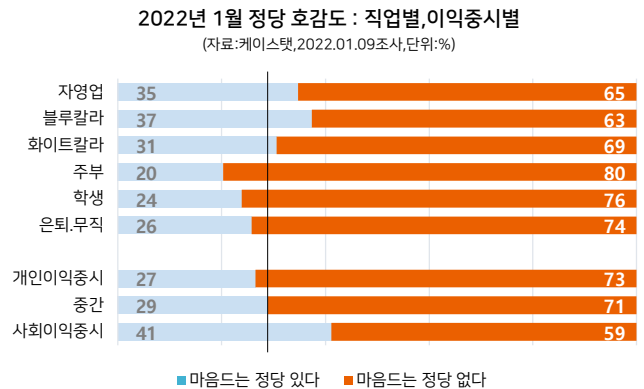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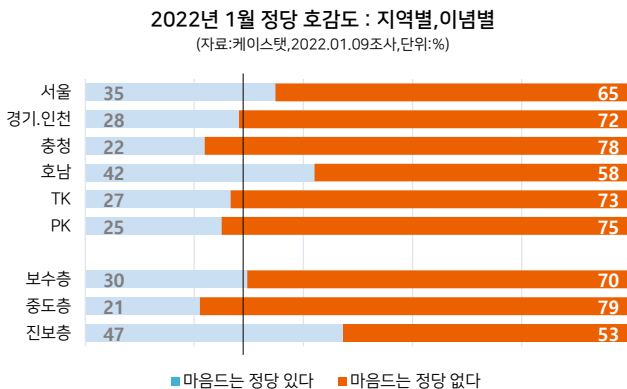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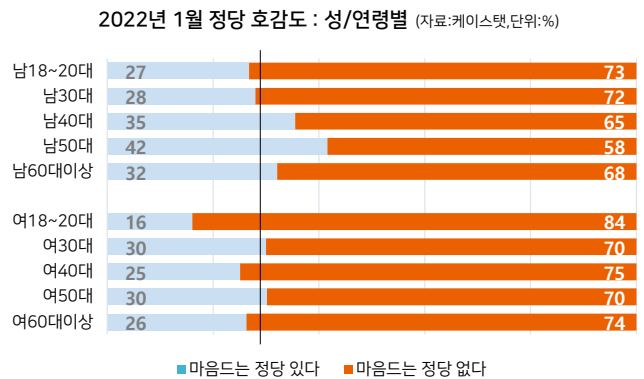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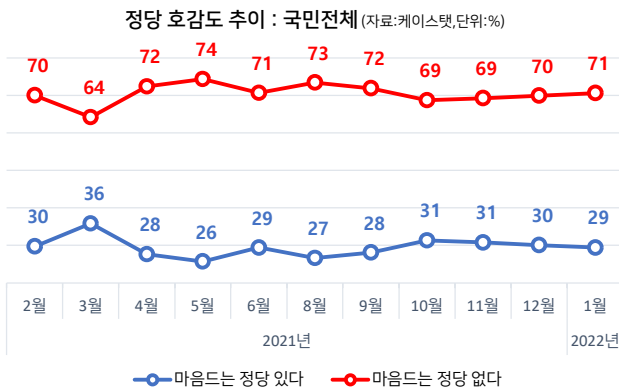


### Kstat Point

- ☑️ 국민적 기대감 속에 시행된 '위드 코로나' 정책(11월 1일 시행)이 무산되고,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위드 코로나' 정책 재도입 시기를 기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하락한 것으로 보임
- ☑️ 다만, 진보층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 만족도를 지탱해 주면서 하락 폭을 제한한 것으로 보임
  - : 이는 대선정국 영향력 때문으로, 앞서의 정부 신뢰도와 함께 정부 정책 만족도 역시 여권후보 지지율에 연동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박스권에 갇혀 있지만 상승도, 하락도 하지 않으면서 정부 신뢰도와 정부 정책 만족도가 더욱 하락하는 것을 막아내고 있음
- ☑️ 전국적으로 여론이 섞이고 전파되는 '설 민심'이 이재명 후보 지지율 상승으로 나타날 경우 정부 정책 만족도 역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 정당 호감도 : 마음에 드는 정당 '없다' 우세

- 우리 국민 다수는 '마음에 드는 정당이 없다'는 생각이 확고함
  - 1월 조사 결과, '마음에 드는 정당 있다' 29% vs '마음에 드는 정당 없다' 71%로 부정평가 우위 흐름이 지속됨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마음에 드는 정당이 없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높은 계층은 △여자 18~20대, 여자 40대 △충청권, PK △중도층 △주부, 학생 등임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세로선은 국민 전체 수치를 의미함
- 상대적으로 '있다'는 의견이 높은 계층은 △남자 4050세대 △서울, 호남 △진보층 △자영업, 블루칼라 △사회이직 중시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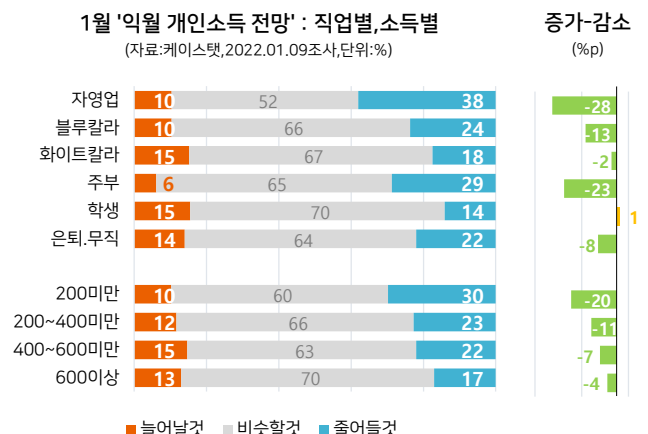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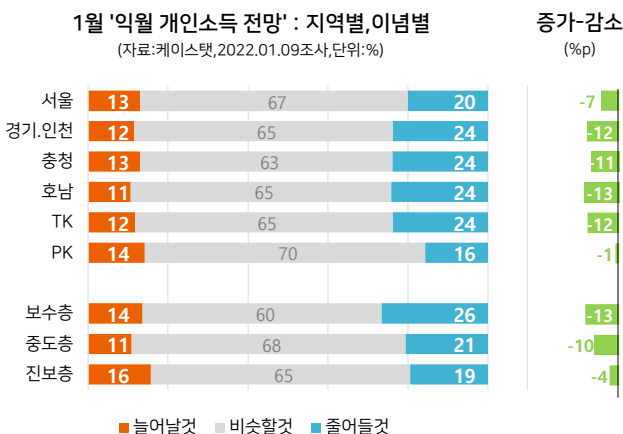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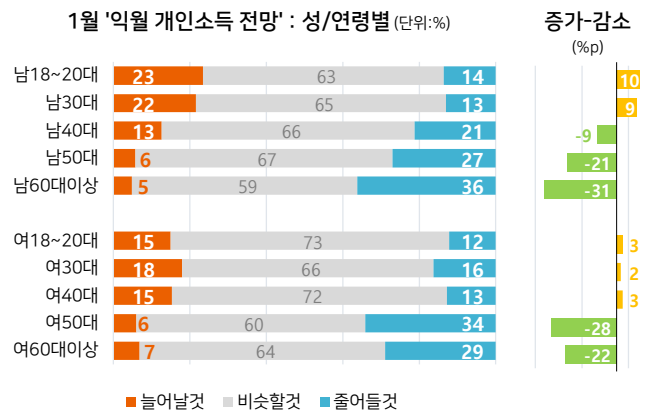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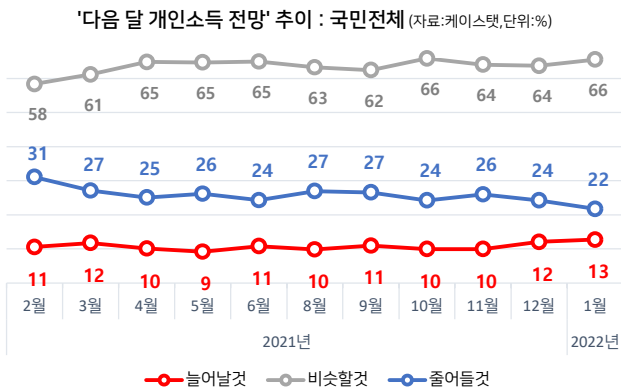


### Kstat Point

- ☑ 이번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세대로 2030세대를 꼽는데, 이들은 하나로 묶기 어려울 정도로 성/연령별로 차이가 있음
  - : 18~20대 남녀는 연령은 같지만 정치·사회 의식은 거의 정반대 경향을 보임(가장 대표적인 것이 양성평등임)
  - : 30대는 남녀 모두 18~20대에 비해 진보적 성향을 보이는 가운데, 양성평등 문제를 두고 20대와 마찬가지로 남녀 간 인식 차이가 있음
- ☑ 대선후보 지지 현황에서도 2030세대는 성/연령별로 다른 모습임
  - : 남자 18~20대는 윤석열 후보 지지가 뚜렷한데 비해 여자 18~20대와 남녀 30대는 부동층이 많음
  - : 특히 정당 호감도가 가장 낮은 여자 18~20대의 경우 대다수가 부동층에 머물러 있음
- ☑ 이들 여자 18~20대와 남녀 30대의 표심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대선 결과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됨

## □ 다음 달 개인 소득 전망 : 새해에도 부정적 전망

- 다음 달 개인 소득 전망은 조사 이후 한결같이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줄어들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우세함
  - ‘지금과 비슷할 것’ 66%, ‘줄어들 것’ 22%, ‘늘어날 것’ 13% 순으로 조사됨
- 국민 전체적으로 ‘늘어날 것’에서 ‘줄어들 것’을 뺀 ‘차이’는 전월 대비 소폭 하락, -9%p로 나타남
- 소득전망을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차이가 있음
  - ‘차이’가 플러스를 기록해 소득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 성/연령은 남자 2030세대와 여자 2040세대임
  - 이에 비해 ‘차이’가 마이너스로 소득 하락을 예상한 성/연령은 남자 4060세대와 여자 5060세대임
- 그외 계층에서는 거의 모든 계층에서 ‘차이’가 마이너스를 기록해 소득 하락 의견이 우세함
  - 마이너스 수치가 특히 큰 계층은 △보수층 △자영업자, 주부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등임
  -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수치가 낮은 계층은 △PK △진보층 △화이트칼라, 600만원 이상 고소득층 등임
  - 학생층은 +1%p로 소득 상승 의견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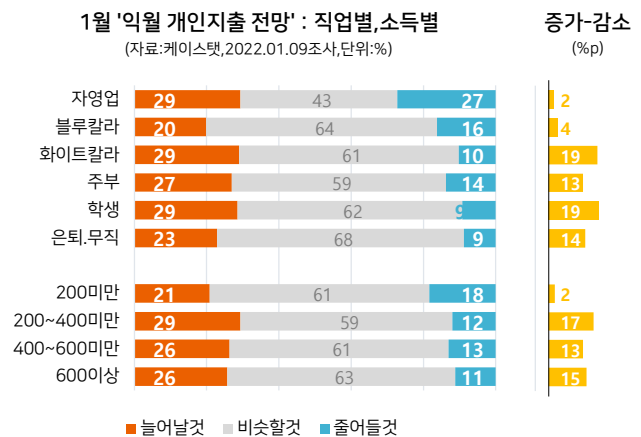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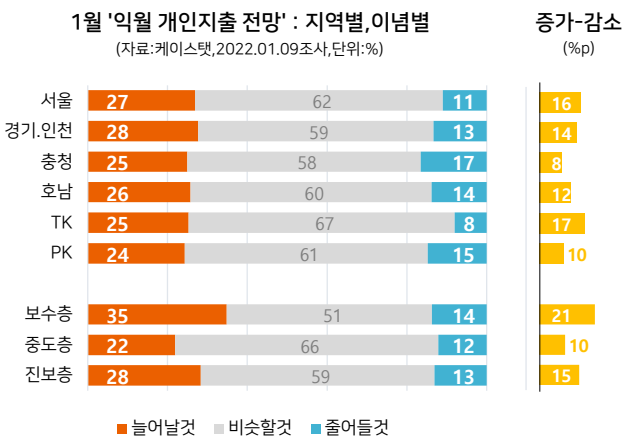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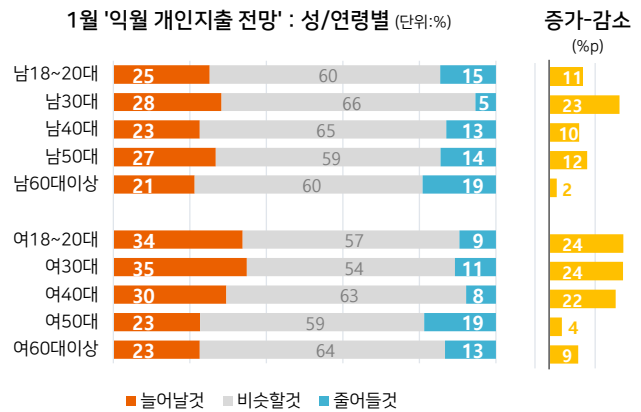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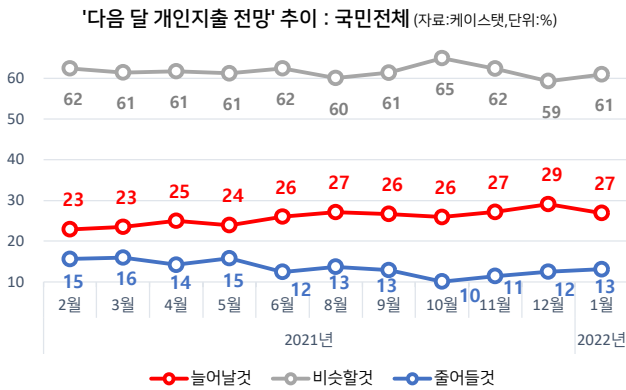
Kstat Point

- ☑ 새해 들어서도 우리 국민들의 소득 전망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 여전히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고, 대부분 계층에서 ‘차이(증가감소)’가 마이너스임
-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달에도 부정적 전망은 유지될 것으로 보임



## □ 다음 달 개인 지출 전망 : '늘어날 것' 우위 지속

- 다음 달 개인 지출 전망도 조사 이후 계속적으로 '지금과 비슷할 것'이 높은 가운데, '지금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지금과 비슷할 것' 61%, '늘어날 것' 27%, '줄어들 것' 13% 순으로 조사됨
- 국민 전체적으로 '늘어날 것'에서 '줄어들 것'을 뺀 '차이'는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14%p임
- 모든 계층에서 '차이'(늘어날 것 - 줄어들 것)가 플러스를 기록해 지출증가를 예상했으며, 특히 플러스 수치가 높은 계층은 △남자 30대 △여자 2040세대 △보수층 △화이트칼라, 학생 등임
- 상대적으로 플러스 수치가 낮은 계층은 △남자 60대이상 △여자 50대 △층청권 △자영업자, 블루칼라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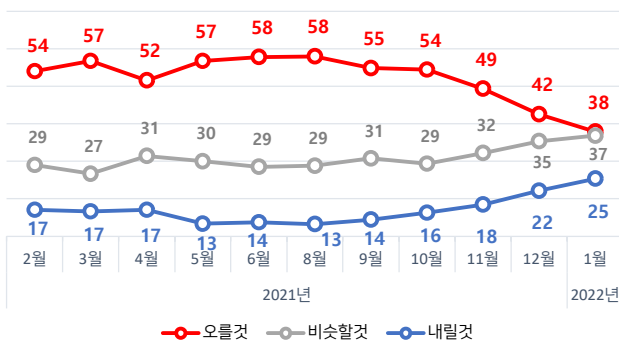
### Kstat Point

- ☑ '다음 달 지출 전망'은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보다 높음
  - : 앞서 소득 전망과 연결 지어 보면, 소득은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우세함
- ☑ 특히 최근의 가파른 물가상승 흐름을 볼 때 이러한 부정적 전망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 또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까지 겹치면서 국민들의 경제심리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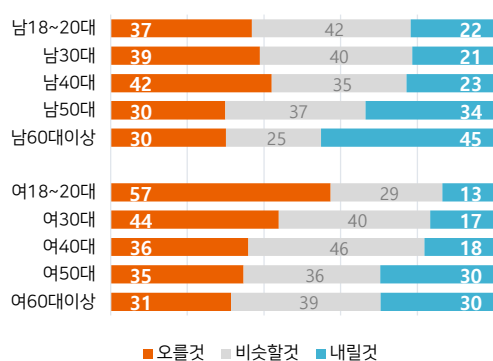
## □ 부동산 가격 전망 : '상승 전망' 하락세

- 향후 부동산 가격 전망에 대해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조사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 2022년 1월 조사 결과,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는 의견은 38%이고, '지금과 비슷할 것' 37%, '지금보다 내릴 것' 25% 순으로 나타남
-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차이'(오를 것 - 내릴 것)가 플러스를 기록해 부동산 상승 전망이 우세하지만, 수치는 뚜렷하게 낮아짐
- '차이'의 플러스 수치(상승 전망)가 특히 높은 계층은 △여자 2030세대 △개인이익 중시층 △보수층 △국가 '잘못된 방향' 평가층 △정부 불신층 등임
- '차이'가 마이너스 수치(하락 전망)를 기록한 계층은 △남자 5060세대 △국가 '옳은 방향' 평가층 △정부 신뢰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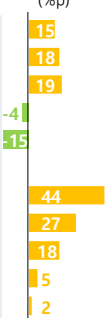
'향후 부동산 가격 전망'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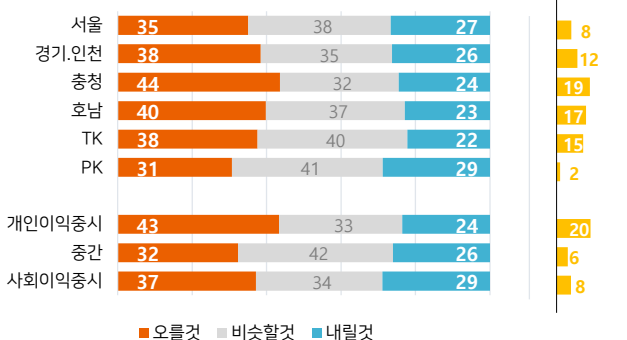
1월 '향후 부동산 가격 전망' : 성/연령별 (단위:%)



상승-하락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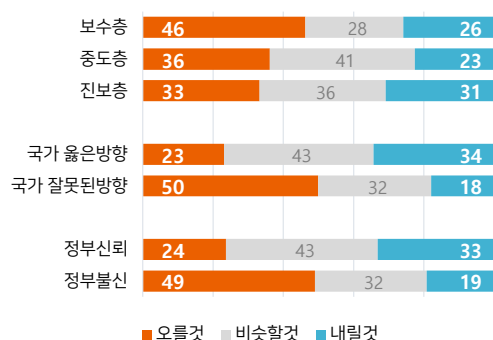
1월 '향후 부동산 가격 전망' : 지역별,이익별 (자료:케이스탯,2022.01.09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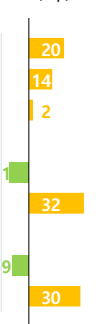
상승-하락 (%p)



1월 '향후 부동산 가격 전망' : 이념별 등 (자료:케이스탯,2022.01.09조사,단위:%)



상승-하락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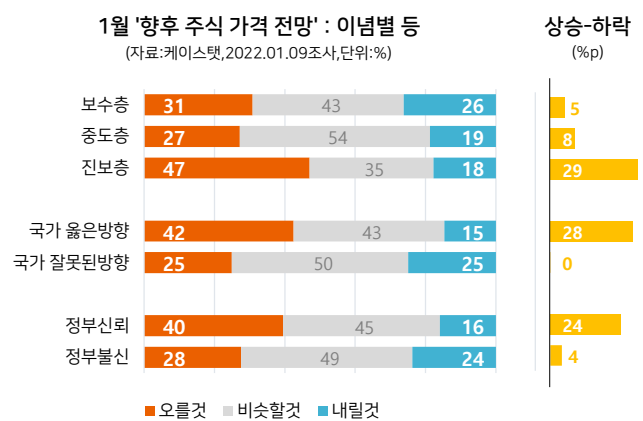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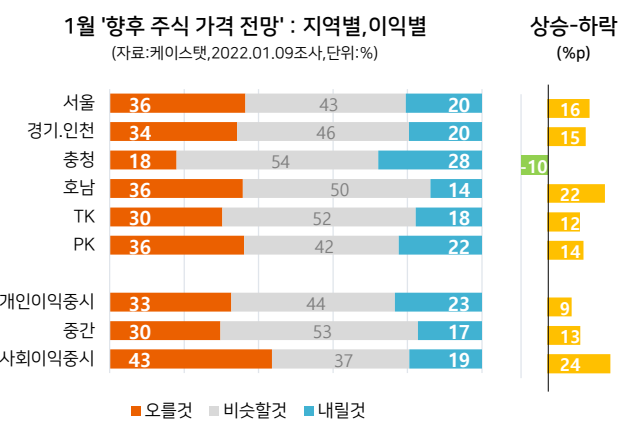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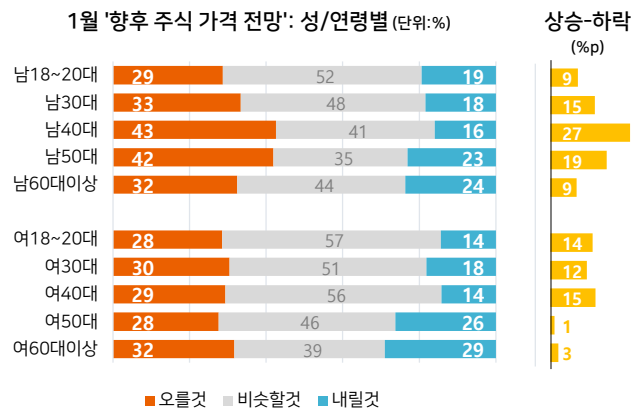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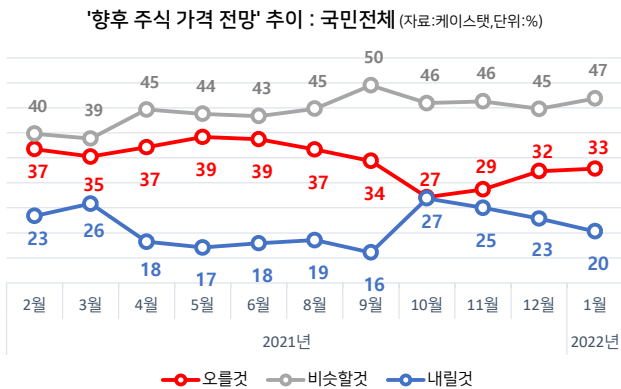


### Kstat Point

- ☑ 최근 들어 부동산 가격 전망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뚜렷하게 하락함
- ☑ 현실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부동산원의 작년 12월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29% 오르는 데 그쳐, 전월(0.63%) 대비 상승 폭이 절반에 그침
  - : 이러한 흐름은 대선후보들의 주택관련 공약을 지켜보자는 이른바 '대기 심리'에 기인한 측면이 강한 것으로 분석됨

## □ 주식 가격 전망 : '상승 전망' 지속

- 국민들은 주식 가격이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이 우세한 가운데, 최근 들어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지금과 비슷할 것' 47%, '지금보다 오를 것' 33%, '지금보다 내릴 것' 20%순임
- '오를 것'에서 '내릴 것'을 뺀 '차이'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플러스를 기록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 충청권만 -10%p를 기록,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 '차이'가 플러스 수치(상승 전망)를 기록한 계층 중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4050세대 △호남 △사회이익중시층 △진보층 △국가 '옳은 방향' 평가층 △정부 신뢰층 등임
- '차이'의 플러스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은 △남자 18~20대, 남자 60대이상 △여자 5060세대 △개인이익 중시층 △보수층, 중도층 △국가 '잘못된 방향' 평가층 △정부 불신층 등임



###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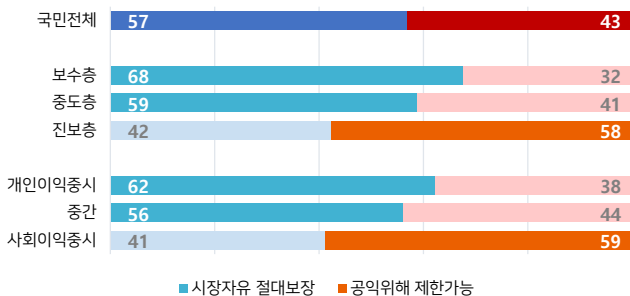
- ☑ 1월 14일 코스피 지수는 2,921.92를 기록, 지난해 7월 6일 사상 최고치 3,305.21에 비해 11.6% 하락함 : 또한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대금은 1월 13일 현재 20조1026억원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2조원의 절반 이하로 줄어듦(자료, 한국거래소)
- ☑ 앞으로도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이기에, 작년과 같은 주식시장 호황은 재현되기 힘들다는 전망임

## 1월 특별지표 : '자유'에 대한 태도 / '한국민 우려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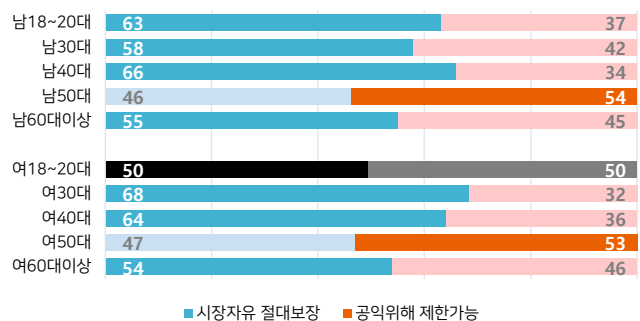
### □ '시장자유 절대 보장' 57% vs '공익위해 제한 가능' 43%

- 시장자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됨
  - 설문 문항 : "선생님께서서는 다음 주장 중 어느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 ②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정부가 시장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 국민 전체적으로 '시장자유 절대보장' 의견이 57%로 '공익위해 제한가능'(43%) 보다 높게 나타남
-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시장자유 절대보장'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높은 계층은 △보수층 △개인이익 중시층 △남자 18~20대, 남자 40대 △여자 3040세대 △블루칼라, 학생 등임
- '공익위해 제한가능'이 우세한 계층은 △진보층 △사회이익 중시층 △남자 50대 △여자 50대 등임
  - 서울은 '시장자유 절대보장'과 '공익위해 제한가능' 의견이 각각 51%, 49%로 팽팽하고, 여자 18~20대는 공히 50%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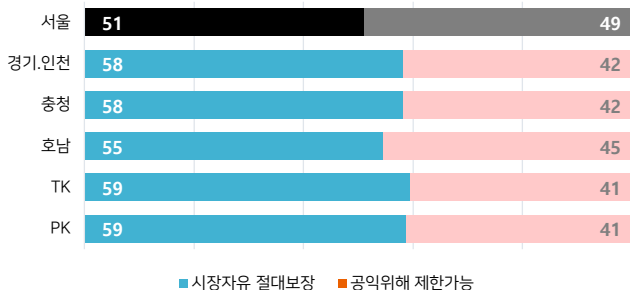
'시장자유'에 대한 태도 : 국민전체, 이념별, 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2.01.09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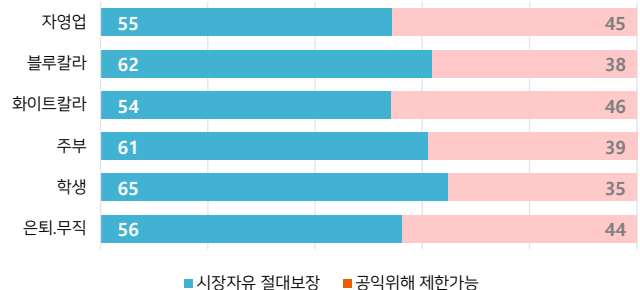
'시장자유'에 대한 태도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시장자유'에 대한 태도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2.01.09조사,단위:%)



'시장자유'에 대한 태도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2.01.09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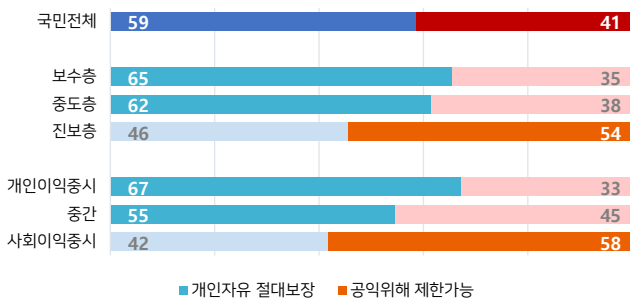
#### Kstat Point

- ☑ 시장자유에 대한 정부(국가)개입에 대한 태도는 이른바 '보수'와 '진보'(또는 우파와 좌파)를 가르는 핵심임 : 서구사회에서의 보수는 절대적인 시장자유를 주장하고, 진보는 시장에 대한 정부(국가)개입을 주장함
- ☑ 이러한 면에서 우리 국민의 이념성향은 서구에 비해 불완전하고, 형성되어 가는 과정인 것으로 보임 : 보수층과 진보층 모두 압도적인 비중이 아니며, 진보적이라는 남녀 40대와 호남에서도 시장자유 의견이 우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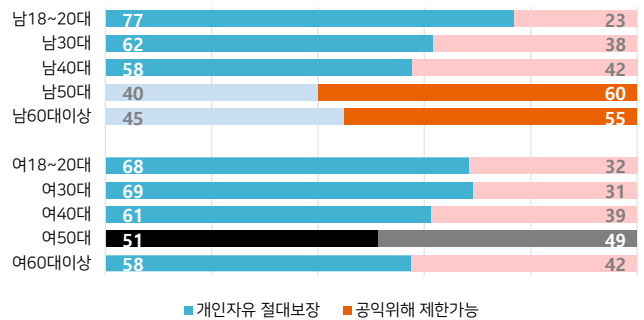
## □ '개인자유 절대 보장' 59% vs '공익위해 제한 가능' 41%

- 개인자유에 대해 국민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함
  - 설문 문항 : "선생님께서서는 다음 주장 중 어느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 ①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 ②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 국민 전체적으로 '개인자유 절대보장' 의견이 59%로 '공익위해 제한가능'(41%) 보다 높게 나타남
-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개인자유 절대보장'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높은 계층은 △보수층 △개인이익 중시층 △남자 18~20대 △여자 2030세대 △TK △블루칼라, 학생 등임
- '공익위해 제한가능'이 우세한 계층은 △진보층 △사회이익 중시층 △남자 5060세대 △호남 등임
  - 여자 50대는 '개인자유 절대보장'과 '공익위해 제한가능' 의견이 각각 51%, 49%로 팽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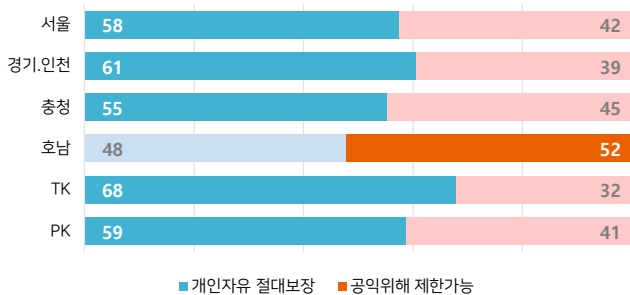
'개인자유'에 대한 태도 : 국민전체, 이념별, 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 2022.01.09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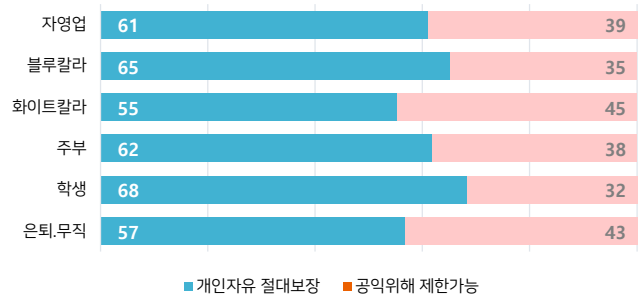
'개인자유'에 대한 태도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 단위:%)



'개인자유'에 대한 태도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 2022.01.09조사, 단위:%)



'개인자유'에 대한 태도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 2022.01.09조사, 단위:%)



###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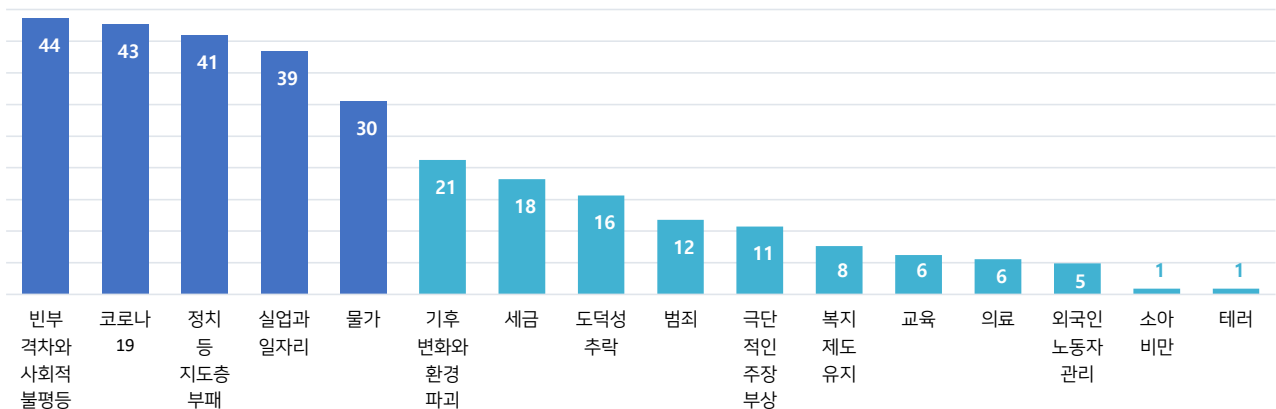
- ☑ 개인자유에 대한 정부(국가) 개입에 대한 태도는 '권위주의'와 '탈권위주의'를 가르는 기준점임
  - : 이 역시 서구사회에서 먼저 만들어진 개념으로, 서구에서의 '권위주의'는 공익을 위해 개인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탈권위주의'는 절대적인 개인자유를 주장함
- ☑ 개인자유에 대한 태도 역시 우리 국민들은 다소 혼동스러운 모습임
  - : 서구사회에서 비교적 진보는 '탈권위주의'에 가깝고, 보수는 '권위주의'에 가깝는데, 우리 국민들은 정반대 양상임
  - : 진보적인 남자 50대와 보수적인 남자 60대 이상이 '권위주의적' 의견을 공유하는 것도 이례적임
- ☑ 우리사회는 앞서 시장자유에 이어 개인자유에 대한 태도 역시 가치관적으로 확립되어 일관적인 태도를 유지한다기 보다 모순적이고 혼동스러운 면이 강한 것으로 보임
  - : 이는 정치권도 동일해 '때에 따라 다른 말과 행동'을 하는 토대이자 '내로남불'의 출발점이 된다는 비판적 지적임

## □ 한국사회 우려 이슈 : 불평등, 코로나 19, 지도층 부패

- 한국사회의 다양한 이슈 중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이슈는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44%), ‘코로나 19’(43%), ‘정치 등 지도층 부패’(41%), ‘실업과 일자리’(39%) 등으로 조사됨
- “선생님께서 우리사회를 돌아볼 때 다음 중 어떤 문제가 걱정되세요? 3가지만 골라주세요”라는 질문 후 다음과 같은 항목을 제시한 결과임
 

① 실업과 일자리	②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	③ 정치 등 지도층 부패
④ 기후변화와 환경파괴	⑤ 복지제도 유지	⑥ 범죄
⑦ 세금	⑧ 교육	⑨ 물가
⑩ 극단적인 주장 부상	⑪ 의료	⑫ 외국인 노동자 관리
⑬ 테러	⑭ 소아 비만	⑮ 도덕성 추락
⑯ 코로나19		
- 다음으로 ‘물가’(30%), ‘기후변화와 환경파괴’(21%), ‘세금’(18%) 순으로 나타남
- 한편, 가장 낮은 응답을 나타낸 이슈는 ‘테러’(1%)이고, 다음으로 ‘소아비만’(1%), ‘외국인 노동자 관리’(5%), ‘의료’(6%) 등으로 조사됨

한국사회 우려 이슈(복수응답)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2.01.09조사,단위:%)



### Kstat Point

- ☑ 우리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걱정하는) 이슈는 ‘코로나19’ 외에도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과 ‘정치 등 지도층 부패’로 나타남
  - 국민들은 코로나19가 일상을 마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불평등과 지도층 부패 역시 코로나19만큼 중요한 이슈라고 응답한 것임
- ☑ 이러한 생각은 한국민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도 비슷한 것으로 조사됨
  - 글로벌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가 2021년 11월에 발표한 세계인이 우려하는 상위 다섯 가지 이슈는 다음과 같음
  -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32%), 실업과 일자리(30%), 코로나19(28%), 정치 등 지도층 부패(28%), 범죄(27%)
  -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한 최대 이슈로, 향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핵심적인 국가 아젠다가 될 것으로 전망됨
- ☑ 참고로 「입소스」는 ‘What Worries the World’라는 주제 아래 지속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1년에 3~4회 조사), 케이스탯은 글로벌 비교를 위해 입소스 조사 항목에 준해 이번 조사를 실시함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 [케이스탯 리포트 44호] 발간 안내

케이스탯 리포트 44호는 『ESG 경영에 대한 국민인식』이라는 주제로 1월 27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